

# 化工同門

| 발행일 | 2012년 겨울 | 발행처 |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T.510-1431 | 통권 | 제16호

## | 동문회장 인사 |

###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이라 하면 우리는 언뜻 봉사나 기부를 연상하거나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선행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연말이 다가오면 구세군의 자선냄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요사이엔 언론매체나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글을 통해 나누는 삶에 대한 뉴스와 담론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로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더 나아가 지구 반대편의 낯선 땅에서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원주민을 위해 현지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사람, 익명으로 물질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는 호기심과 함께 나뉘는 봉사를 해 본다고 한번 방문한 아프리카 오지 어린이의 삶을 체험하고 매년 자신의 비용으로 그곳을 방문하고 오는 젊은이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쳐 불우한 이웃, 지구촌의 가난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실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나누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깊게 터치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공동문회도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많은 동문들이 존재하기에 성장하고 계속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예외 없이 많은 동문들이 동문회 모임과 행사에 기꺼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셨고 후배들을 위해 흔쾌히 장학금 기부도 하셨습니다. 화공생명공학부에 입학한 신입 새내기들을 위한 환영 등반대회에서 생동감과 활력이 넘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동문회의 미래를 내다 볼 수 있어서 행복했으며, 불편하신 몸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100% 참석하시는 선배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다정다감 하심과 성숙함에 고개 숙여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 학번들에 대한 동문회 참여 활성화 문제를 차기 회장단에 넘겨야 하는 아쉬움도 묻어나는 한해였지만 그들도 조만간 동문회를 향한 관심과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가 오리라 확신하며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화공동문 여러분,

금년 한 해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동문회장을 맡아 동문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을까 연초 출발부터 마음 한편 무거웠는데 동문 여러분들께서 동문회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는 나누는 삶을 실천해 주신 많은 동문님들 덕분에 금년 내내 제 자신 행복한 시간이었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모교 재학생의 면학을 위해 아낌없이 문창화공장학회에 기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 특히 선배 동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에 이어 금년 제6회 화공동문의 날에 보여주신 동문 여러분의 전폭적인 참여와, 뜨거운 열정, 그리고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문 여러분의 나누는 삶의 실천을 통하여 화공동문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주신 모든 동문들, 특히 선배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의미 있고 건강한 한해로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비록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과 열정의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년 한해 수고하신 회장단 임원님들, 총무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새 회장단과 함께 동문회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기약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회장

임영환



동문회장  
임영환

## 부산대학교 화학공학과 동문 여러분께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장  
황 규 석

존경하는 화학공학과 동문 여러분,

이렇게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학과의 한 해를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화학공학과가 학부제로 운영되어 왔던 응용화학공학부에서 다시 단독학과로서 출발한 2010년부터 올해 2012년까지 3년간 공과대학내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에서 평균 입학성적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자질도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이공계장학생이 17명, 대학으로부터 입학성적 우수 특별장학생이 2명이었습니다. 또한 수치상의 취업률 뿐 만아니라 취업

의 질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해 주시고 빛나는 업적을 내주신 동문 여러분의 힘입니다. 또한 동문 여러분께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었고 학과로서도 학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과에서도 이러한 동문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화공관 부속연구동의 리모델링에 크게 도움을 주신 남기용 회장님을 비롯하여 학과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동문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문교회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도 학부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공장견학을 주선하고 안내를 해 주신 SK울산공장의 여러 동문들과 저녁식사와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울산 동문회에 학부장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에도 매년 시행될 공장견학에 울산동문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본 학부는 대형 국책사업인 “두뇌한국 21”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부산대학교의 특성화 사업 중 하나인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특성화 사업단” (학부생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장

황 규 석

## 동문회소식

### 1. 신임 회장단 출범

- 회 장 : 임 영 환 동문(69학번)
- 수석부회장 : 이 중 희 동문(71학번)
- 수석 총무 : 박 영 원 동문(75학번)
- 총 무 : 한 정 권 동문(81학번)

### 2. 2012학년도 1기 우수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고. 정경영 동문(56)설립)

- 일시 : 2012년 2월 23일
- 장학금 수혜자 : 최유경, 임서희(이상 2학년), 김태운(이상 4학년)

### 3. 신. 구 회장단 업무 인수인계 회의

- 일시 : 2012년 3월 7일
- 장소 : 장전동 “참나무숲불갈비”

### 4. 회장단 및 학과교수 간담회

- 일시 : 2012년 3월 21일
- 장소 : 허심청 “어가”

### 5. 박경기 동문 (61학번, 하이테크칼라) 모교 강의

- 일시 : 2012학년도 1학기
- 모교 4학년 공장설계 강의

### 6. 2012년도 1/4분기 회장단 회의

- 일시 : 2012년 4월 5일
- 장소 : 온천장 “금문”
- 의결사항  
- 2012년 사업계획, 2012년 예산안 토의



### 7. 학과 발전기금 및 물품 기부

- 박영원 동문(75) : 2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 기증 (화공생명공학부 학부실험실 설치)
- 안창덕 동문(85) : 화공생명공학부 동아리 지원금 500만원 기부

### 8. 2012년 화학공학과 신입생 환영 등반대회

- 일시 : 2012년 5월 12일
- 장소 : 금정산성 동문
- 참가 : 학부생 200여명, 대학원생 30여명, 학과교수 8명  
임영환 회장, 박경기 동문, 양경석 동문, 박영원 총무

### 9.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등반대회 (부산대학교 총동문회 개교 66주년 기념 효원 동문 가족등반대회 동시시행)

- 일시 : 2012년 6월 3일
- 동문 부부동반 70여명 참가



### 11. 제6회 부산대학교 화공 동문의 날

- 일시 : 2012년 10월 20일
- 경북 문경, 상주 일대
- 동문 및 동문가족 130여명 참석



### 10. 2012학년도 2기 우수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고. 정경영 동문(56)설립)

- 일시 : 2012년 8월 29일
- 장소 : 여수 무일화성
- 장학금 수혜자 : 안유정 (1학년), 김태형 (2학년), 전성하 (4학년)

## 장학회소식

### 1. 제39회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 및 문교장학생 2012년 1기 장학금 수여식

- 일시 : 2012년 2월 29일
- 장소 : 상남국제회관
- 장학금 수혜자

문창화공장학회		문교장학생	
학년	성명	학년	성명
3	김재현	3	강형호
3	최재원		
4	손기벽	4	김수진
4	민성식		

- 2012년 기명기탁제 장학금 기부자  
: 박경기(61), 최의영(63), 박상욱(64), 강석근(66), 박현병(66), 양경석(69), 임영환(69), 이중희(71) (이상 200만원/년), 안창덕(85) 동문 (이상 400만원/년)



### 2. 제40회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 및 문교장학생 2012년 2기 장학금 수여식

- 일시 : 2012년 8월 30일
- 장소 : 상남국제회관
- 기명기탁제 장학금 기부  
: 박경기(61), 최의영(63), 박상욱(64), 강석근(66), 박현병(66), 양경석(69), 임영환(69), 이중희(71) (이상 200만원/년), 안창덕(85) 동문 (이상 400만원/년)
- 장학금 수혜자

문창화공장학회		문교장학생	
학년	성명	학년	성명
2	이호형	3	강형호
2	최원준		
2	정경선		
3	김재현	4	김수진
3	최재원		
4	손기벽		
4	민성식		

### 3. 2012년 장학금 조성내역 (기명기탁제 장학금 제외)

- 최한윤 (57학번)동문 : 14,000,000원
- 정동진 (64학번)동문 : 5,000,000원
- 65동기회 : 1,700,000원 (이황균 외 15명)
- 그 외 개인 기부자 : 21명 (1,280,000원)

## 학과소식

### 1. 2012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일 시 : 2012년 2월 17일
- 학사과정 : 50명 (남 33명, 여 17명)
- 석사과정 : 7명 (남 2명, 여 5명)
- 박사과정 : 1명 (여 1명)

### 2. 화학공학과 부속연구동 (구. 증류탑동) 내 문교홀 조성

- 남기용 동문 동판 제작 및 부착



### 3. 2012학년도 입학식

- 일시 : 2012년 3월 2일
- 화공생명공학부 신입생 58명 (국가이공계장학생 17명, 입학우수장학생 Premier 장학생 2명)

### 4.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여산촉매학술상 수상 (주최 : 한국화학공학회)

- 일시 : 2012년 4월 26일
- 장소 : 제주 컨벤션센터



### 5. 화공생명공학부 박대원 교수 한국화학공학회 영문지 장려상 수상

- 일시 : 2012년 10월 25일
- 장소 : 부산 BEXCO

### 6. 화공생명공학부 김석 교수 한국 탄소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주최 : 한국탄소학회)

- 일시 : 2012년 5월 11일
- 장소 : 구미 금오공대



### 7. 화공생명공학부 현규 교수, 주목되는 젊은 유변학자상 수상 (주최 : TA Instruments사)

- 부상 : 12만 달러(한화 1억 3천여만원)상당의 기기



학과소식

8. 화공생명공학부 현 규 교수, 2012 기초연구 우수성과 50선 선정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 일 시 : 2012년 9월 13일
- 연구명 : 진폭이 큰 진동유동을 이용한 복합유체의 비선형거동해석

9. 화공생명공학부 신입교수 김종래 동문 (91학번) 임용

- 일시 : 2012년 9월 1일
- 전공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리파이너리
- The Pennsylvania State Univ., USA 박사학위 취득 (2006)
- Univ. of Glamorgan, UK 교수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단 선정

11. 2012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 일 시 : 2012년 8월 24일
- 학사과정 : 16명 (남 8명, 여 8명)
- 석사과정 : 3명 (남 2명, 여 1명)

12. 2단계 부산대학교 대학 특성화 분야 선정 (2012년~2015년)

- 분야 : 환경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 (환경공학과와 공동으로 신청)
- 지원액 : 연간 1억 3천만원

13. 제23회 화학공학 (이동현상) 학력경시대회 (주최 : 한국화학공학회) 동상 수상

- 일 시 : 2011년 10월 6일
- 장 소 : 서울대학교
- 수상자 : 송형용 (동상, 학부3학년)

14. 2012년 화학공학 대학생FUN&FUN Festival (주최 : 한국화학공학회)

- 일 시 : 2012년 10월 24일~26일
- 장 소 : 부산 BEXCO
- 수상자

수상내역	성명	작품명
금상	오민하 외	Water? Don't Worry
장려상	주명국 외	에너지제로하우스
장려상	최희라 외	영화는 영화다

15. 2012년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지식경제부장관상 (대상), 우수상 수상 (주최 : 특허청, 한국공학한림원)

- 수상자 : 김승완, 한정완, 박소향 (이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이원주, 이예지, 박수정(우수상)

16. 학부3학년 산업시찰

- 일시 : 2012년 11월 9일
- 장소 : 울산 SK
- 학부 3학년 63명 및 학과교수 6명 참석
- 협찬 : 재울산동문회, SK부산대화공동문회 저녁 식사(예매)제공

## SK에너지 울산 complex 견학

화학공학 · 생명공학 전공 3학년 이 인 환



화학공학의 끝자락인 3학년 2학기 중반 즈음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로 울산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의 견학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한 울산은 바다와 인접하여 배를 이용한 에너지자원의 수송이 편리한 지역으로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공업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SK에너지의 시초인 대한석유공사로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사 SK에너지는 현재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고 더 큰 미래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홍보실에서 SK울산 complex에 관하여 영상 자료를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던 저희들은 실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체계화를 갖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영상 자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원유를 수입하여 92%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쓴다는 것, 원유 수송에는 원유선, Bouy(해상원유하역시설) 혹은 해저 송유관, 원유탱크 순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 20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원유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석유품질관리와 분리된 석유제품의 수송방법으로 유조화차(장거리), 탱크로리(단거리), 송유관(Pipe line)이 있다는 것, 나프타 분해시설(NCC), 윤활유(윤활기유 95%, 첨가제 5%)를 생산하는 공장을 100% 우리 기술로 설계했다는 것 등을 SK에너지 공장을 축소해놓은 모형과 함께 설명을 들으니 겉으로 보면 복잡해보였던 공장 설비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있고 원유 수송부터 제품 생산까지의 모든 과정이 최적화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각 과정에는 저희들이 1학년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학문과 지식들이 속속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도 영상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자료가 끝나고 SK에너지에 근무하시는 부산대학교 선배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시어 저희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고 그에 덧붙여 중요한 기로에 서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한 자, 한 자 모두 기억할 순 없지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신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견학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친구도 있었고 자신의 결정을 굳건하게 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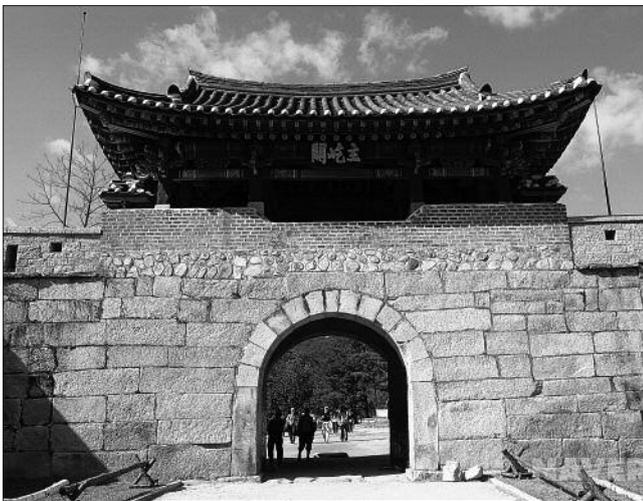


이후 버스를 타고 모형으로 보았던 공장을 실제로 보고 친절한 가이드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더욱 더 화학공학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파이프들도 그냥 지어 진 것이 아니라 모두 복잡한 설계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고 각 파이프의 용도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여 구분하기 쉽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SK울산 complex 견학을 통해서 이론적인 면이 아닌 실질적인 학문으로서의 화학공학을 만날 수 있었으며 좀 더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학문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음에 이번 견학 기회를 만들어주신 과와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 문경에서 가을을 느끼며

화학공학 · 생명공학 전공 2학년 최 원 준



문경새재는 조선시대 때 한양에 과거를 보기 위해 꼭 지나가야 했던 과거 길로 문경새재의 새재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도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몇 년 전에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를 느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다가 촬영지가 문경새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문경새재를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들만 보다가 이번 기회에 문경새재를 직접 가게 된다는 사실에 기대를 안고 새벽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다.

출발장소인 연산동에 도착하여 조교님들의 지도하에 아침식사와 간식거리 등을 받아 버스에 싣고 선배님들께 인사를 하며 출발 준비를 마쳤다. 버스가 출발하고

아침식사 전 요깃거리로 떡과 간식거리를 나눠 드리고 좀 더 알찬 여행이 되기 위해 해설사 분께서 오셔서 오늘의 여행지에 대한 역사와 관련정보를 포함하여 여행 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주셨다. 해설사 분께서 해주신 말씀으로는 문경새재 입구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간대별 여러 가지 코스로 관광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만큼 가을에 단풍구경을 하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하셨다. 올해에 따로 단풍구경을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가을을 맞이하는 여행을 오게 되니 마음이 들뜨게 되었다. 휴게소에서 잠시 쉬고 아침으로 연잎밥을 먹고 조금 더 가니 문경새재에 도착했다.

문경새재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이 보였다. 문경새재 입구에서는 사과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그들이 축제에 있는 놀이와 이벤트를 참가하는 모습에 있어 어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까지 훈훈해졌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멀게 보면 하늘은 푸르고 높으며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져 있고 가까이에선 냇물이 흐르고 거기에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낙엽들을 밟는 소리를 한동안 만끽하니 지친 일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던 것 같

아 기분이 좋았다. 그렇게 다시 걸었던 길을 되돌아와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다음 장소는 경북팔경중의 제 1경으로 뽑히는 진남교반이 보이는 고모산성으로 향했다.

고모산성으로 올라가는 길은 돌로 만들어진 돌길이었 고 올라가자 '진남문'이라는 곳이 나왔다. 가이드 분께서 그 옆 성벽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진남교반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셨으나 시간상 꼭대기까지는 올라가 지 못하였다. 비록 진남교반 전체를 보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두고 산성 뒤로 성황당을 지나 풀떡고개라는 곳에 서서 이 지형에 대한 역사와 관련 된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야 했다. 마지막으로 문경의 마지막 코스에 다다랐 고, 선배님들과 함께 걸으면서 이것저것 인생의 이야기

를 해주시는 걸 들으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 졌다.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우를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한우를 한 점 먹으니 피곤한 기색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한우를 이렇게 맛있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선배님들께 감사함을 느끼며 배 불리 먹었던 것 같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부산으로 출발, 11시경 출발 장소였던 연산동에 도착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까지 빠듯한 일정으로 많이 피곤했 지만, 문경에 가서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조언과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들을 보면서 가을을 실컷 만끽 하고 온 것 같아 나로써 이 하루가 정말로 값진 시간으로 남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행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동문선배님들과 조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문창화공장학회 기금 모금 및 지급현황

재단법인 설립당시 2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시작하여 약 3억여 원을 추가 모금하여 현재 기본재산이 5억원으로 증자되었다. 현재 남기용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이 뜻을 모아 일정기금을 약정하여 향후 10억원을 목표로 기금 모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기명기탁제 학비지원 장학금”이라 하여 장학금 기탁자와 수혜자를 서로 연결하여 학업증진을 독려하고 화공 산업현황 등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선후배의 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발전은 물론 학과의 발전 또한 도모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은 1993년부터 시작하여 재단설립이전에 6천 4백여만 원, 설립 이후 1억 8천8백만원을 지급하

였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문교장학금은 현재 3천 6백만원, 1995년부터 시작된 우송장학회는 7천 5백여만 원에 이른다.

구분	시작년도	지급총액	비고
동문회 장학회	1993	63,800,000	
문창화공장학회	2002	188,000,000	2001년 10월 설립
문교장학생	2004	36,000,000	
우송장학회	1995	74,800,000	
합 계		362,600,000	

## 장학기금 조성내역

기간 : 1989년-2012년 11월 20일 현재

### 1. 개별장학기금 조성내역

학 번	성 명	금 액
59	남기용	147,100,000
56	정경영	45,000,000
57	최한운	25,000,000
59	김동욱	22,400,000
59	구의남	22,100,000
66	박현병	20,200,000
64	정동진	20,000,000
85	안창덕	18,000,000
61	박경기	16,500,000
66	강석근	15,300,000
69	임영환	15,050,000
63	최의영	13,550,000
71	이중희	13,0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4	신정호	11,350,000
57	박영근	11,000,000
56	박관욱	10,100,000
69	양경석	7,500,000
60	이백운	5,000,000
61	최은석	3,100,000
58	길옥균	3,000,000
58	김운식	3,000,000
60	김승정	3,000,000
83	이준호	2,550,000
60	허수일	2,500,000
64	박상욱	2,500,000
59	허경도	2,3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64	송승구	2,100,000
56	문창해	2,000,000
64	천두갑	2,000,000
69	정순구	2,000,000
60	조성기	1,900,000
60	정순각	1,800,000
63	정의우	1,500,000
64	최명호	1,500,000
61	김재성	1,400,000
59	장정효	1,350,000
69	박태주	1,300,000
61	성평건	1,200,000
61	임무성	1,200,000
64	윤한수	1,200,000
60	서민석	1,100,000
63	김기환	1,050,000
55	권석현	1,000,000
56	박성호	1,000,000
57	김갑재	1,000,000
57	성재갑	1,000,000
58	백용기	1,000,000
58	이병민	1,000,000
61	박성철	1,000,000
61	송진현	1,000,000
61	최인승	1,000,000
63	이건웅	1,000,000
64	이성희	1,000,000
74	강윤근	1,000,000
학과교수	서길덕	1,000,000
65	정원찬	850,000
64	전시중	750,000
58	이성호	650,000
63	정두호	650,000
74	황규석	600,000
57	김흥관	580,000
62	박효가	580,000
65	허병도	550,000
66	김영우	550,000
57	안종관	500,000
57	장영남	5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8	홍종갑	500,000
60	박동명	500,000
60	황방태	500,000
61	문규열	500,000
61	유해준	500,000
64	강선원	500,000
67	엄현섭	500,000
68	공영건	500,000
68	김순봉	500,000
70	김해송	500,000
72	문대인	500,000
76	박영배	500,000
학과교수	이선구	500,000
57	김정원	400,000
61	이재환	400,000
64	이정용	400,000
학과교수	박성훈	400,000
60	이종대	360,000
61	이용수	350,000
60	박태준	330,000
65	권용훈, 정인숙	330,000
92	김민영	320,000
76	김인실	310,000
54	김정곤	300,000
54	신영조	300,000
57	노환생	300,000
57	이유만	300,000
58	우병이	300,000
59	정대식	300,000
60	김순덕	300,000
60	신성철	300,000
60	오경희	300,000
60	윤수상	300,000
60	이동만	300,000
61	권인렬	300,000
61	박상효	300,000
61	유기진	300,000
61	이은우	300,000
61	허 열	300,000
65	최선진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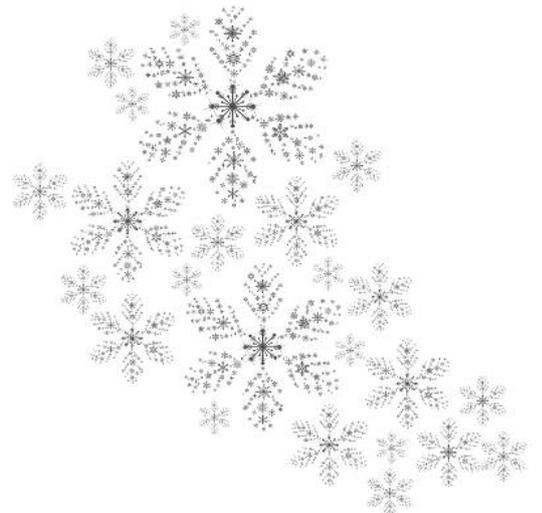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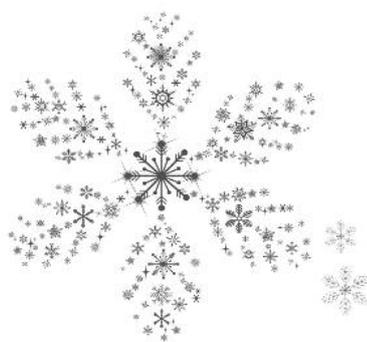
| 장학기금 조성내역 |

학 번	성 명	금 액
75	김원호	300,000
71	박문평	250,000
70	박상국	230,000
62	조태호	210,000
57	강무공	200,000
57	이재희	200,000
60	전영철	200,000
60	하대호	200,000
60	한홍일	200,000
60	황오수	200,000
61	김성현	200,000
61	문기주	200,000
61	오정근	200,000
61	정상수	200,000
61	최문주	200,000
62	한우길	200,000
64	박영근	200,000
64	박홍수	200,000
65	김병욱	200,000
65	김치홍	200,000
65	변기수	200,000
65	성대운	200,000
65	이황균	200,000
65	정대용	200,000
65	정복만	200,000
65	조용암	200,000
67	박성흠	200,000
68	이무원	160,000
57	오태훈	150,000
61	문상두	150,000
61	이은식	150,000
63	최봉립	150,000
71	심재홍	150,000
75	노근식	150,000
76	문창하	150,000
69	박건준	130,000
73	이학성	130,000
68	김영대	110,000
71	허성호	110,000
55	김동윤	1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55	원용돈	100,000
56	김성문	100,000
57	박응중	100,000
57	서병인	100,000
57	이인우	100,000
57	장태진	100,000
57	정용욱	100,000
57	정종무	100,000
57	최문갑	100,000
58	김양	100,000
60	박동식	100,000
60	박용규	100,000
60	신길성	100,000
60	한성환	100,000
61	배주호	100,000
63	김창준	100,000
63	오문길	100,000
63	이갑용	100,000
65	박민	100,000
65	이동숙	100,000
65	이용우	100,000
66	김종현	100,000
66	황일승	100,000
67	서근학	100,000
70	황영기	100,000
71	김경식	100,000
72	모태수	100,000
72	이종식	100,000
72	주창식	100,000
73	임균택	100,000
74	김성수	100,000
74	류용구	100,000
74	하창식	100,000
75	금시환	100,000
75	김영찬	100,000
75	최낙만	100,000
75	황두범	100,000
78	정갑섭	100,000
79	박현균	100,000
79	이상문	100,000

학 번	성 명	금 액
81	박영기	100,000
82	김상봉	100,000
85	강영태	100,000
93	백향희	100,000
학과교수	김부용	100,000
학과교수	박대원	100,000
55	신일성	80,000
68	윤병철	80,000
69	장병화	80,000
70	강성호	80,000
81	최정근	80,000
82	문진복	80,000
82	전호철	80,000
58	박무영	50,000
59	김청조	50,000
59	박희문	50,000
59	황성창	50,000
61	박대훈	50,000
61	여상화	50,000
62	이송환	50,000
66	김철수	50,000
66	이창근	50,000
67	조영정	50,000
68	김용택	50,000
69	이종훈	50,000
<b>총 액</b>		<b>533,830,000</b>

학 번	성 명	금 액
70	구호진	50,000
70	유춘재	50,000
70	이희태	50,000
70	하맹재	50,000
71	이건수	50,000
74	이두현	50,000
75	박근우	50,000
76	이상준	50,000
79	최진영	50,000
58	김성도	30,000
58	윤우용	30,000
59	송진길	30,000
59	원이건	30,000
62	김도열	30,000
67	조상현	30,000
68	박기선	30,000
69	이군섭	30,000
69	이흥기	30,000
70	오태원	30,000
70	정홍준	30,000
71	정영준	30,000
84	임성호	30,000
	이훈석	30,000
	미상	160,000
<b>총 액</b>		<b>533,830,000</b>



## 2. 기별장학기금 조성내역

학 번		금 액	학 번		금 액
55	동기회	500,000	66	동기회	500,000
56	동기회	1,000,000	67	동기회	500,000
57	동기회	1,000,000	68	동기회	500,000
58	동기회	1,000,000	69	동기회	4,200,000
59	동기회	1,000,000	70	동기회	2,500,000
60	동기회	1,000,000	71	동기회	500,000
61	동기회	1,000,000	72	동기회	500,000
63	동기회	2,000,000	74	동기회	500,000
64	동기회	2,000,000	75	동기회	2,000,000
65	동기회	2,700,000	76	동기회	3,000,000
<b>총 액</b>			<b>26,900,000</b>		

## 감사합니다!

화학공학과 동문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장학재단이  
 많은 동문들의 모교와 후배를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재단법인 문창화공장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한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 5억 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었으며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대 회장단을 위시한 몇몇 동문들의 큰 기여가  
 재단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정성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성장하는 장학재단이 되어야 명실상부한 화학공학과 동문회의  
 장학재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동봉된 지로용지에 금액을  
 3만원, 5만원의 두 종류로 표기하였습니다.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하여 주십시오.  
 또는 아래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동문 여러분의 장학재단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동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장학기금 기탁 계좌

- 농협 948-01-125980
- 예금주: 재) 문창화공장학회

